

포토저널리즘 사진과 캡션의 의미작용에 대한 연구

정흥기

(영남대 조형대학)

본 연구는 하나의 주제를 다룬 다섯 장의 사진과 캡션을 통해, 포토저널리즘의 구성단위인 사진과 글에 대한 수용자의 해독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민속지학적 방법과 의미분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기호의 의미작용과 해독의 의미작용을 분리시켜, 기호와 해독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기호학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다의성을 띤 사진이미지에 캡션이 첨가됨으로 수용자의 해독에 변화가 있었다. 두번째, 해독에있어 수용자의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세번째, 포토저널리즘 영역에서 사진만으로는 사실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용자의 문화적 코드를 바탕으로 한 글이 들어감으로써, 포토저널리스트와 수용자간의 보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포토저널리스트가 재현한 현실과 그것을 해독하는 수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고, 이것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 전제에 대한 고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키워드: 포토저널리즘, 사진과 캡션, 수용자 해독, 캡션

1. 서론

1) 문제제기

포토저널리즘¹⁾은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상호간의 경험 또는 의식의 공유라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가능한 현대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정보를 전달하는 발신자의 표현적 행위가 수신자에 의해 직접 해석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대일의 대면 관계가 아닌 경우에,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 된다. 이렇듯 정보(시각)매체를 통한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대량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사진은 무한히 다양한 인간경험을 기록하는데 매우 적합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양종훈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뉴스를 보다 충격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해주고자 할 때 사진은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기록의 한 도구가 된다고 주장했다(양종훈, 1994, 80쪽). 그러므로 사진을 통한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포토저널리즘은 이러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보도사진의 영역을 말한다. 따라서 포토저널리즘은 사진가가 의도한 메시지를 수용자(audience)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레스터는 “포토저널리즘이란 글이 첨부된 한 장의 사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두 매체의 주 요소는 다르지만 상호작용을 통한 결합으로 일관된 개념을 형성한다”고 말했다(Lester, 1991, p. 4). 또한 히스는 “포토저널리즘의 목적은 시각과 언어적 매체를 사용하여 이 두 매체로 인한 일관되며 보다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다.”

-
- 1) 저널리즘이란 기사나 사진 등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알리는 수단으로 사진을 이용한 것이 포토저널리즘이다. 뉴스 사진을 비롯하여 신문사진, 그리고 주간지, 월간지 등에 게재되는 사진의 대부분이 포토저널리즘이라 할 수 있다. 포토저널리즘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주관적이거나 허식이나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사진’에서 ‘진실이란 무엇인가’로 해석이 발전함에 따라, 뉴스 사진 이외의 보도사진에는 사진가의 주관적인 직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많아졌다. 또한 내용 면에서는 사회성, 인간성에 저널리즘 가치를 두고, 사회생활 속의 모순이나 특이한 사상, 파문혀 발견되지 않는 생활 방법이나 현상을 발굴하여 알리고자 하는 사진이다(박건재, 1995, 38-42쪽).

니케이션의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하고 말했다(Hicks, 1952, p. 5). 본 연구의 문제는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토저널리즘의 기본단위가 되는 사진과 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포토저널리즘 사진을 통한 수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맥락에서 수용자 해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어떤 방향으로 해독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둘째, 이런 변화에 수용자의 개인성향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캡션의 어떤 요소가 해독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는 사진만 제시했을 경우와 사진과 캡션을 동시에 제시했을 경우, 캡션이 사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사진의 이미지는 다의적이기 때문에 캡션을 넣음으로써 수용자의 해독양태는 달라진다. 따라서 사진가와 사진, 그리고 수용자의 관계 속에서 사진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 글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민속지학적 방법²⁾과 의미분별법을 사용하였다.

- 2) 민속지학적 방법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직접적인 관찰과 접촉을 통해,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주체의 실천을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민속지학적 작업은 그들의 다양한 문화수용 행위를 관찰하고 추적하거나 인터뷰, 그룹 토론, 자기 보고서 등 대중이 직접 자연스럽게 기술한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지학의 목적은 보편적인 법칙을 정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에서의 구체적인 생활경험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적 규범과 패턴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이루는 것이다(Morley D. & Silverston, 1991).

민속지학적 방법의 특성은 첫째, 사람들의 행동은 조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실험적인 상황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연구된다. 둘째, 자료의 수집은 관찰과 비공식

분석은 기호학적인 방법론을 토대로 했다. 기호학적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행한다. 기호 자체와 기호가 조직되는 약호와 체계, 이러한 기호를 둘러싼 문화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글과 사진이라는 기호 자체가 조직되는 체계의 분석을 통해 그것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용자들의 해독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캡션의 영향을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바르트는 “실제로 기술된 논평 없이 실린 보도사진은 없지만 분석은 각각의 분할된 구조를 다루어야 한다. 즉 각 구조의 연구를 이끌어 낸 후에야 그들이 서로 보완하고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다(Barthes, 1981/1997, p. 66). 이러한 해독양상을 분석하는 틀로는 전환테스트(Commutation test)와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을 활용하였다.

피스크는 “전환테스트는 통합체 내에 있는 한 (기호)단위를 변화시켜서, 그로 인한 의미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한 계열체(paradigm) 혹은 통합체(syntagm) 내에서 중요한 차이나 변별적인 특징(distinctive features)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 이 같은 차이나 특징이 갖는 의미를 정의 내릴 수 있게 한다”하고 말했다(Fiske, 1990/1997, p. 191). 전환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진 분석의 예를 보면, 보통 한 장의 사진에서 그 속에 담긴 요소 하나를 변형시킴으로써 해독의 양상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 또한 사진의 제목을 바꾸거나, 제목의 위치를 달리함에 따라 변하는 해독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포토저널리즘은 글과 사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자료수집은 미리 세워진 구체화된 연구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구조화된’ 것이다. 이것은 조사가 비체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료가 원래의 형태 그대로 수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연구대상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집단이나 사회환경이 된다. 다섯째, 자료의 분석은 인간의 언어적 기술과 설명, 관찰한 행동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Hammersley, M, 1996).

우선 사진이미지만을 보여줬을 때 해독자가 사진에 담긴 요소를 통해 어떤 외시적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사진 이미지에 그 사진의 주제를 첨가하거나, 캡션을 첨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해독양태와, 또한 해독자의 문화적 배경이 해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테스트를 통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 태도, 정서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오스군(Osgood, 1967)의 의미분별법을 응용하고자 한다. 피스크(Fiske, 1990/1997)는 느낌, 태도, 정서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경험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시도는 바르트 식의 ‘함축의미’를 측정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³⁾ 이러한 기호학적 분석의 기초 자료는 민속학적 방법을 활용한 집중적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민속학적 방법은 기호 자체와 기호가 조직되는 약호와 체계를 수용자들이 해독하게 만드는 이차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된다.

(2) 연구대상

기호가 되는 사진과 글은 연구자가 작업한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진 다섯 장으로 했다. 보도된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독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보도된 사진은 이미 수용자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분석에 사용한 사진이 재현(representation)하는 현실과 사진에 부여된 함축

3) 의미분별법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1) 조사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항목들을 구분해서 이를 5점 혹은 7점 척도상의 이항대립개념으로 배열한다. 이때 조사대상은 대개 8개에서 15개 정도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2) 각 척도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기 위해 표본집단이나 선택된 집단에 게 질문한다. 3) 그 결과를 평균치로 계산한다(Fiske, 1990/1997).

의미를 연구자가 경험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5장의 사진은 레니 로코스의 불법체류 노동자에서 사망, 시신송환에서 장례식까지를 기록한 것이다.⁴⁾ 사진-1은 ‘출국기간 조정’이라는 도장과 그가 일한 ‘회사명’, ‘기간연장’이라는 세 개의 도장으로 그가 체류를 연장하며 불법으로 일했음이 집약된 여권 사진이다. 한 장의 여권이 그가 한국에서 생활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2는 ‘대형냉장고’, ‘차가운 시멘트 벽’, ‘사무적인 사람들의 표정’, ‘흰 천이 덮힌 그의 시신’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불법체류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죽었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그의 시신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수속이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사진-3은 고향에서 그의 시신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슬픔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주변의 인물들’,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보이는 관’, ‘따뜻한 불빛’을 표현하였다. 6년만에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슬픔과 한국에서는 노동인력으로만 존재했던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사진-4는 그의 장례식 일정을 알리는 표지판이다. 표지판 속의 ‘죽은 날짜’와 ‘장례식 날짜’, 그의 ‘이름’과 ‘29세의 젊은 나이’, 표지판 아래에 ‘뻣뻣히 적힌 방명록’, 표지판 뒤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이 사진을 구성한다. 이는 젊은 나이에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죽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치르게 되는 장례식, 그를 찾아 온 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통해 장례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다. 사진-5는 장례식의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어머니의 눈물’, ‘검은 옷’, ‘흰 손수건’, ‘부축하는 사람들’을 사진에 담았다. 어머니를 통해 그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슬프고, 허망한 것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4) 본 논문, 분석에 사용된 사진참조

조사는 6명의 대상과의 비공식적인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비공식적인 면담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와 관련된 그들의 일상적인 느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 등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각각의 면담은 조사대상자들에 따라 두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민속지학적 방법의 특성은 첫째, 사람들의 행동은 조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실험적인 상황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연구된다. 둘째, 자료의 수집은 관찰과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자료수집은 미리 세워진 구체화된 연구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구조화된’ 것이다. 이것은 조사가 비체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료가 원래의 형태 그대로 수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연구대상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집단이나 사회환경이 된다. 다섯째, 자료의 분석은 인간의 언어적 기술과 설명, 관찰한 행동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Hammersley, 1996; 백선거, 1996, p. 231 재인용).

<표 1> 조사대상자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즐거보는 매체	기타사항
A	남	1973년생	대학원재 (문화인류학전공)	대학원생	한겨레신문 월간 말	학생운동에 참여,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음
B	남	1963년생	대학원재(건축전공) / 서양화과 졸업	건축 · 인 테리어	중앙일보 (문화 경제면)	모든 생활에서 독립 적인 것을 추구
C	여	1964년생	일본학과를 졸업 하고, 일본에서 메 이크업 전공	메이크업/ 대학강사	한겨레신문 (문화 정치면)	학생운동에 참여/ 정치제도에 대한 비 판
D	남	1955년생	고 졸	직업군인	TV	가족중심/공식적인 모임을 좋아하지 않 음/ 사회적 변혁에 대해 부정적
E	여	1960년생	고 졸	커피숍	TV	인간적인 정과 도리 를 중시여김
F	남	1960년생	고 졸	선인장 농장 경영	조선일보 인터넷 (스포츠)	도덕적이고 윤리적 인 것에 관심

따라서 기호 자체와 기호가 조직되는 약호와 체계, 이러한 기호를 둘러싼 문화에 대한 연구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민속지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의 성향은 <표 1>과 같다.

2. 이론적 배경

1) 문화와 기호의 의미작용

문화는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다는 점이다. 의사소통 없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끊임없는 정보의 교환과 새로운 정보의 창조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가 만들어지며, 그 보다 앞서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또한 문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문화는 <복합적인 전체>이다. 여기서 복합적이라는 것은 단지 타일러식의 나열이 아니라 다양한 개체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송효섭, 1997, 14-17쪽). 이 관계들이 기호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즉 문화는 실체가 아닌 추상물이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문화를 드러내는 기호인 것이다.

기호학은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고찰이라 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는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 학문적 목적이다. 기호학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언어와 문화의 체계 그리고 특히 기호학적 체계와 문화 및 현실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Fiske, 1990/1997, p. 234). 글과 사진은 하나의 기표가 되고, 포토저널리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의 기의가

된다. 여기서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이 미국의 전통적인 기호학자인 퍼스의 논지이다. 퍼스는 기호란 어떠한 목적과 자격을 갖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어떤 것이라고 했다. 기호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기호는 사람의 마음 속에 기호의 등가물 혹은 그보다 더 발전된 기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Fiske, 1990/1997, p. 86).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기호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에서부터 그림, 사진, 음악, 심지어 거리의 신호등까지 모든 것을 기호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 기호에 의해 그 의미를 파악해나간다. 기호학은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signification)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징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호를 만들기 위해서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의미작용, 의미화라고 한다. 의미작용은 기호를 만들어 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의미를 풀이할 때도 일어난다(김경용, 1998, 12쪽). 즉 의미작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기호를 만들 때(기호작용)와 기호를 풀이할 때(기호해석) 일어난다. 앞장에서 말한 A가 장미를 사랑의 기호로 만들거나 B가 사랑의 기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의미작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방향의 의미작용의 내용이 같을 때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미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송신자 쪽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이 수신자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의미는 전달되거나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다(김경용, 1998, 20-24쪽). 이를 보다 정교화시킨 사람이 바르트이다. 바르트가 말한 의미작용의 1차 단계는 외연의미(denotation)이다. 이는 소쉬르가 말한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기호를 만드는 의미작용을 말한다.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대상의 영상을 창출함에 있어서 기

계적이고 화학적인 카메라 작용을 말한다. 의미작용의 2차 단계는 함축 의미(connotations)의 단계로 기호가 사용자의 느낌이나 사용자의 문화적 가치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 함축의미는 외연의미에서 사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 측면이 강하다. 함축의미는 해석자가 임의로 정하는 주관적 가치를 뜻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호가 표상하는 대상체와 연관된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함축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Fiske, 1990/1997, pp. 48-49).

2) 사진과 캡션의 의미작용

모든 모방적 예술들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유사물 그 자체인 외연적 의미와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시적 의미, 즉 문화 속에 녹아있는 내포적 의미이다. 모든 정보 구조들 중에서 사진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고갈시키는 외연적 의미에 의해서만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점유되는 유일한 것일 수 있다(Barthes, 1981/1997, pp. 68-69). 하지만 사진은 단지 인지되고 수신되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것이며, 그것을 소비하는 대중들에 의해 다소간 의식적으로 기호들의 전통적인 저장소에 연결된다. 따라서 사진의 외연적 의미는 수용자의 문화적 배경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해독을 일으키며, 이것은 내포적 의미와 연결된다.

앞서 사진이 사실 그대로의 복제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사진 자체가 현실이 아니므로 사진 속의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피스크의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의 개념이 유용하다. 은유는 낯익은 대상을 통해 낯선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낯익은 것은 '표현수단(vehicle)'이고 낯선 것은 '전달의미(tenor)'가 된다. 또한 은유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환유는 어떤 한

부분을 통해 전체를 지칭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유의 대상을 선정하는 일은, 선택된 환유를 통해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현실마저 구성된다는 점 때문에 중요하다. 사진은 현실에 대한 환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환유는 자연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Fiske, 1990/1997, pp. 167~168). 예를 들어, 한 사진에서 눈물을 통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은유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현실에 대한 환유이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진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은유와 환유의 방법을 활용하며 현실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이처럼 환유는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체적으로 작용하며, 은유는 상상적 혹은 초현실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열체 적으로 작용한다(Fiske, 1990/1997, p. 173). 따라서 은유는 그 구성에 있어 보다 상징성이 강한 데 비해, 환유는 도상이나 지표에 가까운 기호다. 은유는 보다 가공적이고 초현실적 효과를 기호 사용자의 마음에 일으킨다. 이에 반해 환유는 도상이나 지표에 가까운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 사용자의 마음에 현실적 효과를 일으킨다(김경용, 1998: 75). 이 두 가지 방법은 결국 송신자와 수신자의 문화적 공유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은유와 환유의 반복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며 검증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가정의 일부가 된다. 상식은 일견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늘 자의적이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사진과 캡션의 의미작용을 살펴보면 바르트는 그림과 같은 도상적 이미지가 내포하는 기호는 “떠도는 사슬고리(une chaîne flottante)”인데, 이를 글이 “고정(ancrage)하거나 중계(relais)”한다고 했다. 모든 사회에는 확실치 않는 기호들에 대한 공포와 싸우기 위해서, 고정되지 않은 연쇄를 고정하도록 정해진 다양한 테크닉이 발전한다. 사진에 첨가되는

글과 같은 언어학적 메시지는 이들 테크닉 가운데 하나이다(Barthes, 1981/1997, p. 95). 이러한 맥락에서 이 고정과 중계의 개념은 사진에 글이 첨가됨으로써, 수용자의 해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고찰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캡션은 사진의 이해에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능 또한 달라지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준다.

도상적 이미지가 가지는 다의성은 의미에 관련된 의문, 즉 ‘이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글이 가지는 명명 기능이 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글이 그림에 대해 가지는 ‘고정’ 기능이다. 예를 들어, 의미중복성이 낮은 표지판이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볼 때, 수용자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단지 사진에 명시된 몇 자의 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글이 그 사진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 줌으로써,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다의적인 이미지에 대한 고정의 기능이다. 한편 ‘중계’는 글이 도상적 이미지에 대해 상보적 기능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은 글이 더 이상 이미지를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깃발을 든 군중이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의 경우, 수용자는 이 사진을 보고 시위현장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여기에 ‘이것은 00년 00월 00일에 어디에서 일어난 무엇에 관한 시위현장입니다’라는 글을 첨가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해독에 고정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글은 단지 잉여정보가 될 뿐이다. 여기서 사진에 따라 캡션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고정과 중계의 기능이 함께 수행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텍스트에서는 발화 주체, 시간, 공간적 상황과 문맥을 담당하는 담론의 부분과, 메시지의 내용과 전개를 보여주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메시지가 어떤 상황, 어떤 문맥에서 제시되

는지'를 말해주는 부분과,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을 기술적 측면(plan descriptif)과 서술적 측면(plan narratif)이라 한다(Barthes, 1981/1997, p. 383). 예를 들어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 그 전달의미를 기사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어떤 상황, 어떤 문맥에서 제시되는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진은 단지 잉여정보가 되고, 이 때의 사진은 기술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바르트가 지적한 대로, 특정 상황을 독자가 각인하는 것은 오히려 '좀더 경제적인 방법'인 사진 쪽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반면 그림책의 경우는 다르다. 아이에게는 그림들이 서술성의 근원이며 어머니가 읽어주는 글, 즉 말은 오히려 그림에 대한 기술이 될 뿐이다. 물론 이는 기술성과 서술성의 개념을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 두 측면은 명확한 구분없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수용자의 해독유형을 분석할 때, 이 기술성과 서술성의 개념은 사진과 캡션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리라 생각한다.

3) 수용자 해독과 의미생산

맥퀼의 초기 수용자⁵⁾ 연구는 메시지의 내용과 효과를 강조했을 뿐,

5) 수용자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대상으로 하는 익명의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즉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 수신자(receiver)를 의미하는 집합적인 용어를 말한다. 매스미디어 수용자가 나타난 것은 주로 인쇄 책자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인쇄 책자는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사적인 이용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후 신문, 영화, 라디오 등에 의한 미디어 수용자 개념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인 설명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특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왔다. 사회학의 초기 시카고 학파 일원인 Blumer는 수용자가 현대사회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체로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명백한 틀을 제공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대중' 이라고 불렀으며 이전의 사회적 형

수용자는 단지 수동적인 소비자로 치부되었다(McQuail, 1997/1999, pp. 17-21). 이러한 ‘수동적 수용자’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 미디어 수용자 그 자체의 연구에서 구성되어진 개념이라기 보다는 미디어 효과연구의 과정에서 구성된 개념이다(박강우, 1994, 11쪽). 1970년대를 전 후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가운데 중요한 경향 중 하나를 ‘수용자의 문제로의 회귀’라고 한다. 특히 구조주의의 세례를 받은 연구 전통 속에서 거론되는 ‘수용자’는 의미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김재영, 1993, 33쪽). 사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의미는 단지 연구의 대상일 뿐 분석에 우선될 수 없다. 의미란 메시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속에 있으며, 수용자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이란 의미의 전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는 전달되지 않으며 또 전달될 수도 없다. 메시지만이 전달될 수 있을 뿐이며 의미는 메시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사용자 속에 있게 된다(이은진, 1991, 2쪽).

앞서 언급한 기호의 다의성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게 했다. 이는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라는 관점 대신에 ‘수용자들은 텍스트로부터 무엇을 얻는가?’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텍스트에서 인간에게로 옮겨놓은 것이다. 의미를 중심으로 한 수용자 연구가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구조 보다는 수용자의 텍스트 해독에 강조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메시지가 (어떻게 규정되든지 간에) ‘효과’를 갖고, ‘욕구’를 만족시키고, 혹은 ‘이용’될 수 있기 전에, 먼저 메시지가 의미 있는 담론으로 전용되고, 의미 있게 해독되어야 한다”는 홀(Hall, S.)의 주장 이후였다(강만석, 1994, 41쪽). 몰리(Morley, D.)는 홀의 부호화/해독 모델을 이용하여 수용자가 위치한 문화적 배경에 의해 텍스트가 다양하게 해독된다는 것

태인 집단, 군중, 공중과 구별했다.

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 결국 수용자는 텍스트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구조보다는 문화적 생산물과 경험에 의해 의미화 체계를 갖게되며, 해독은 그 결과로서 상호 작용하거나 협상(negotiation)할 때 생기는 의미를 산출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수용자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유를 바탕으로 해독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빨간색이 주는 의미는 사회마다 다르다. 이는 빨간색이 각 문화마다 다르게 코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달리 해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코드화라 함은 기의와 기표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정립된 관계를 약속에 의해서 기호사용자들에게 수용(또는 납득)시키는 기호학적 조작을 말한다(김경용, 1998, 86쪽). 포토저널리즘에서 포토저널리스트는 그가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사건의 전달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한 하나의 이데올로기 창출의 과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포토저널리즘 영역에서는 다른 장르의 사진과 달리, 사진가의 의미작용과 수용자의 의미작용의 일치를 통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실용적인 행위로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의미의 공유를 목표로 한다. 여기서 의미의 공유란 다름 아닌 송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난 의미와 수신자의 마음에 일어난 의미가 똑같아지거나 적어도 서로 비슷해지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의미의 동일성이 일어났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에게 단일 의미를 일으키려는 과정이란 점에서 해독이 관건이 된다. 이에 비해 의미작용은 수신자에게 다중의미를 일으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해석이 관건이 된다.

사진은 가장 충실한 기록인 경우라도, 수신자가 이미 피사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다. 원래 존재하는 추상적 고정 이미지와 이제 막 제시된 사진 속의 이미지와의 차이는 일종의 변별성을 보여준다. 이 변별성이 의미를 낳는다. 이 변별성의 차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사진의 형태를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외재적 상황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형 조작된 사진도 수신자의 심상 속의 원래 모습과의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맥락을 생성할 수 있다(박유정, 1995, 412쪽). 따라서 수용자는 공유된 관념의 다발, 즉 그 사회의 신화, 혹은 문화의 맥락에서 의미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또 다른 신화와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3. 의미분별법을 통한 사진이미지의 해독에 관한 연구결과

1) 의미분별법을 통한 해독양태의 변화

민속지학적 방법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연구자는 8개의 형용사를 대립적인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6명의 수용자에게 각각의 사진에 따른 느낌을 정도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여기서 수용자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캡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느낌의 차이를 보였으며, 해독자 간에도 상이한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본 조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하나의 통합체 내에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이로 인해 의미상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피스크는 의미분별법⁶⁾의 연구가 전환테스트(commutation test)결과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했다(Fiske, 1990/1997, p. 250). 본 장에서는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6) 의미분별법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 1) 조사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항목들을 구분해서 이를 5점 혹은 7점 척도상의 이항대립 개념으로 배열한다. 이때 조사대상은 대개 8개에서 15개 정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면 충분하다.
- 2) 각 척도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기 위해 표본집단이나 선택된 집단에게 질문한다.
- 3) 그 결과를 평균치로 계산한다.

로 세 가지 맥락에서 수용자 해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어떤 방향으로 해독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둘째, 이런 변화에 수용자의 개인성향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캡션의 어떤 요소가 해독에 영향을 주었는가? 사진-1에서 수용자 A의 경우, ‘불법과 합법의 조장’, ‘정부의 불법체류자 양산’이라는 캡션의 내용에 동감하며 다음과 같은 느낌의 변화를 일으켰다.

<표 2> 사진-1에 대한 해독양태⁷⁾

	1	2	3	4	5	6	7	
방어적이다							⊗	공격적이다
정당하다			×				○	부당하다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기쁘다						×	○	슬프다
유쾌하다					×		○	불쾌하다
따뜻하다						×	○	차갑다
여유있다						○	×	긴장하다
공평하다			×				○	편견적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용자 A의 관점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캡션을 읽고, 느낌이 모두 부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수용자의 해독유형에서 살펴 보았듯이, 홀에 따르면 지배적인 가치와 이를 낳은 사회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대항적 약호로 해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사진-2의 경우, 수용자 A, B, C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의 표는 수용자 B의 경우로 수용자 A와 C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B의 경우 슬프다/불안하다와 같은 것은 캡션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 모두 거의

7) 분석표에서 문자표 ‘×’는 캡션이 첨가되지 않은 사진이미지의 느낌, ‘○’는 캡션이 첨가되었을 때, 텍스트의 느낌을 말하며, ‘⊗’는 느낌의 중복을 나타낸다.

<표 3> 사진-2에 대한 해독양태

	1	2	3	4	5	6	7	
성실하다		○			×			성의없다
강하다		○				×		약하다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희망적이다					×	○		절망적이다
편안하다				×		○		불안하다
따뜻하다					×	○		차갑다
기쁘다					×	○		슬프다
여유있다					×	○		긴장하다

부정에 머물렀지만, 성실하다/강하다는 항목에서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다. 성실하다/ 강하다와 같은 느낌은 사진의 외연의 미를 통해서 파악되는 느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함축의미로의 해독의 전환에 따른 느낌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실하다는 대상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캡션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로 변환된 것이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했듯이 사진은 선조성을 띠고 보았을 때, 그 선조성의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용자 A, B, C는 적극적인 부정과 소극적인 부정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반면 수용자 E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D, F도 비슷한 응답을 하였다. 민속지학적 방법론의 인터뷰 대상에 대한 서술에서 수용자 E, D, F는 법의 테두리를 존중하면서, 인간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실하다/인간적이다/편안하다는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사진이미지에서 긍정적인 경우로 옮겨갔다. 전환테스트에서 드러났듯이 수용자 D, E의 경우는 캡션에서 제시된

<표 4> 사진-2에 대한 해독양태

	1	2	3	4	5	6	7	
성실하다			○			×		성의없다
강하다							⊗	약하다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희망적이다							⊗	절망적이다
편안하다			○				×	불안하다
따뜻하다						○	×	차갑다
기쁘다							⊗	슬프다
여유있다				○			×	긴장하다

교통사고라는 변수로 인해 시체의 송환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긍정의 이미지로 옮겨간 것이다. 앞의 세 사람이 대항적 약호체계를 선택했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삶과 교통사고로 일어난 죽음 사이에서 타협적 약호체계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하다/ 희망적이다/ 슬프다의 항목에서는 역시 죽음이라는 상황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 5> 사진-3에 대한 해독양태

	1	2	3	4	5	6	7	
강하다			×			○		약하다
유쾌하다			×			○		불쾌하다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희망적이다		×					○	절망적이다
능동적이다			×			○		수동적이다
따뜻하다		×			○			차갑다
차분하다					×	○		분주하다
밝다				×		○		어둡다

<표 5>는 수용자 A의 경우이다. 사진-3의 사진이미지가 주는 따뜻

한 색감에 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캡션을 읽고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자신의 관점에 무게를 실어 부정적으로 변했다. 인간적이다/ 희망적이다/ 따뜻하다는 항목에서는 폭도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A는 사진-3에 대한 분석에서도 여전히 저항적 약호를 선택하였다. 즉 사진이 주는 분위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과 그를 죽게 만든 현실에 중점을 두어 이를 해독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용자 B, C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적이다/ 희망적이다의 항목에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했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용자 C도 희망적이다/ 따뜻하다는 항목에서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했으며,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용자 E는 인간적이다/ 능동적이다/ 따뜻하다는 항목에서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이 두드러진 캡션으로 인해 부정에서 오히려 긍정으로 옮겨갔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잘된 일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진-4의 경우, 안내판이 주는 고정된 이미지로 그다지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D, F)과 부정으로 반응한 사람(A, B, E), 각각 자신의 느낌을 지속시키고 있다.

<표 6> 사진-4에 대한 해독양태

	1	2	3	4	5	6	7	
효율적이다			○	×				비효율적이다
보통이다		○	×					별나다
검소하다	×	○						사치스럽다
능동적이다		○				×		수동적이다
따뜻하다				⊗				차갑다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기쁘다				×	○			슬프다
합리적이다		○	×					비합리적이다

<표 6>은 D의 경우로 능동적이다/ 인간적이다의 항목을 제외하면 별 변동 없이 긍정을 고수하고 있다.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이 더 이상 노동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캡션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사진-5는 울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으로 수용자 모두 감정적인 반응에 별 변화를 느끼지 않았다.

<표 7> 사진-5에 대한 해독양태

	1	2	3	4	5	6	7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따뜻하다			⊗					차갑다
기쁘다						⊗		슬프다
관심있다				⊗				무관심하다
보통이다		○	×					별나다
이성적이다			⊗					감성적이다
강하다				⊗				약하다
방어적이다				⊗				공격적이다

<표 7>은 D의 경우로, 사진-5는 느낌이 비교적 명확한 사진으로 텍스트에 의해 해독이 결정되므로 느낌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다른 수용자들도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위의 표는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눈물은 슬픔의 은유이므로 해독의 전환보다는 캡션이 사진의 해독에 있어 중계의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수용자는 같은 사진을 보고, 캡션이 있을 때와 캡션을 읽고 난 후, 느낌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로 전환테스트에서 드러난 캡션으로 인한 해독의 차이가 단지 정보를 획득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진에 캡션이라는 변수를 더함으로써 수용자들이 하나의 통합체 내에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이로 인해 의미상의 차이까지 낳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

여주었다. 느낌이나 감정이 개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피스크의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 변화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각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이 그 흥미 있는 내용의 결과이다. 사진-1은 수용자들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E의 경우 부정적인 느낌에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느낌으로 전환했다.

4. 사진이미지와 캡션의 해독에 관한 연구결과

4절에서의 연구는 동일한 사진이미지에 캡션을 넣었을 때 나타난 수용자의 해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섯 장의 사진에 사용된 캡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1은 “출국기간 조정은,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동안의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면죄부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을 규정하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은, 그들의 범죄성이나 반사회성과는 관계없다.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출국기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해주고, 그 노동력이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가치분성은 결국 불법체류 노동자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불법인 것이다.” 사진-2의 경우 “레니 로꼬스는 필리핀에서 온 불법체류 노동자였다. 그가 교통사고로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의 시신을 입관할 수 있었다. 불법체류를 하다 죽으면 화장을 해서 본국으로 송환된다. 필리핀은 카톨릭을 국교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보상금보다 그의 시신을 원했다. 죽음을 대하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다.” 사진-3은 “1991년 12월 6일 레니 로꼬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건강한 필리핀의 한 노동자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향을 뒤로 한 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1997년 12월 25일, 그가 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또한 사진-4는 “5일간 여러 친지들의 문상을 받고서 12월 30일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지난 6년간 물위에 뜬 기름처럼 우리 사회로부터 유리된 존재였던 그가, 죽은 지 40일이 지나서야 더 이상 노동이 필요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된 것이다. 단지 노동력만으로 존재했을 뿐, 정서적·제도적 교감의 대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거부되었던, 그의 삶에 대한 장례식이다.” 사진-5는 “필리핀은 모계사회이다.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상주가 된다. 그녀는 지난 5일간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에 젖어있었다. 어쩌면 그 슬픔은, 장시간의 노동이나 낮은 임금, 못 사는 나라에 대한 경멸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온 자식을 위해 지난 6년간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었던 슬픔이었는데도 모른다.” 위와 같은 캡션의 제시로 인해 사진-1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해독양태를 볼 수 있다.

<표 8> 사진-1에 대한 해독양태

	1	2	3	4	5	6	7	
방어적이다				○		×		공격적이다
정당하다				⊗				부당하다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기쁘다				○			×	슬프다
유쾌하다						×	○	불쾌하다
따뜻하다				○			×	차갑다
여유있다							⊗	긴장하다
공평하다				×			○	편견적이다

유쾌하다/ 여유있다/ 공평하다는 항목은 역시 부정적이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사진이미지만을 봤을 때의 부정적인 느낌에서 캡션을 읽고 4항목이 중립적인 느낌으로 변하였다. 이는 정부도 3D업종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외국인 노동자 또한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점이 앞선다고 응답했다. 사진-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분석표-2-a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한 고려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A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시신을 송환한 측면을 강하게 받아들여 부정적인 느낌에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변화한 D, E의 경우는 대조를 보였다. 이는, 같은 사진과 캡션을 읽었음에도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에 의한 차이를 보여준 결과이다.

<표 9> 사진-2에 대한 해독양태

	1	2	3	4	5	6	7	
강하다							⊗	약하다
유쾌하다						○	×	불쾌하다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희망적이다							⊗	절망적이다
능동적이다				○			×	수동적이다
따뜻하다				○			×	차갑다
차분하다				○	×			분주하다
밝다					○		×	어둡다

<표 9>는 E의 경우이다. 위의 경우와 상반된 느낌을 보여준다. A는 사진이미지가 주는 따뜻함에서 자신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점에 비중을 두어 부정적으로 변한데 반해, E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이미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시신의 송환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적인 느낌에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변화했다.

사진-5의 경우, <표 7>에서는 거의 느낌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C는 캡션의 변수로 인해 느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D가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가 주는 힘으로 인해 느낌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C는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죽음

<표-10> 사진-5에 대한 해독양태

	1	2	3	4	5	6	7	
인간적이다		×				○		비정하다
따뜻하다			×				○	차갑다
기쁘다							⊗	슬프다
관심있다			×			○		무관심하다
보통이다				⊗				벌나다
이성적이다					⊗			감성적이다
강하다				×	○			약하다
방어적이다			○	×				공격적이다

을 유발한 상황에 대한 비정함을 해독의 주안점으로 두어 부정적인 느낌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전환테스트의 결과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본 장의 앞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수용자들은 캡션으로 인해 다른 해독의 양상을 보였고, 이것이 위와 같은 느낌의 차이를 낳았다. 또한 같은 사진, 같은 캡션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은 각각 느낌이나 정서에 있어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들의 반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각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응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정 항목은 각자 강한 자신의 견해를 지닌 결과가 척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Fiske, 1997, p. 256). 이 분석에서는, A의 경우와 D, E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해 진다. 이는 높은 과잉정보의 상태로 앞의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수용자들은 사진 이미지만으로는 거의 해독을 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의미분별법은 느낌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 분석의 적절한 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캡션을 읽기 전에 이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인식

하고,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변수가 그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주는 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에 캡션을 읽고 나서, 수용자들은 오히려 그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불법 조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들 삶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로 생각을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본 조사에서 캡션이 단지 사실 전달에만 머물렀다면, 의도를 가지고 찍을 수밖에 없는 사진에 대한 메시지가 왜곡되어 전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수용자의 해독에 있어 캡션의 영향 분석

앞의 3장과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캡션은 수용자의 해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영향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진과 수용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분석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캡션의 역할을 세분화시켜보고자 한다.

1) 다의성의 제한과 의미의 고정

기술적인 설명이 없는 텍스트는 다의성을 띠고, 해독에 있어서도 파편화된 양상을 띤다. 여기에 텍스트 생산자의 설명이 부가됨으로써, 그 다의성의 제한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미에 대한 고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캡션의 역할은 바르트가 말한 의미의 닳을 내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고정시켰다는데 있다. 물론 다의성의 제한과 의미의 고정은 사진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어떤 사진에는 텍스트가 의미를 고정시키는 주정보로 작용했으나, 또 다른 사진에서는 텍스트가 사진이미지의 잉여정보로 작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증계하는 역할을 했다.

인터뷰를 통한 의미변화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A는 “사진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사진-2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진의 전후 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 캡션을 통해 어둡게 느껴지던 분위기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진-3에서 캡션은 그 상황에 감정적인 동조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사진-4는 장례에 대한 문화적 코드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렴풋한 추측에 머물렀던 것을 죽음에 대한 느낌과 함께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캡션을 첨가하였을 때, 캡션이 사진 이미지의 모호한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고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도 마찬가지로 사진-4에서 뭔가를 나타내는 안내 표지판이 죽음을 알리는 슬픔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사진-4는 A와 B가 공통적으로 반응하였듯이, 장례식에 대한 문화적인 코드의 차이로 사진만을 보았을 때, 쉽게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르트가 말한 ‘닻을 내리다(anchorage)’의 의미, 즉 고정 개념이 적용된다. 그의 말처럼 위와 같은 함축의미가 외연적 의미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설명에 이러한 범위를 좁혀주거나 불가능한 의미의 부분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Fiske, 1990/1997, pp. 192-193). C는 캡션을 통해 사진에서 읽혀졌던 분위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사진-2의 입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성의 없어 보여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캡션을 읽고 나니 대상이 불법체류 노동자이고, 시간이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사진-5는 울고 있는 모습이 엄마 같았는데, 확실히 엄마였다!” C에게 있어서도 고정의 기능, 즉 캡션이 사진의 분위

기에 대한 뜻을 내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앞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캡션은 사진의 모호함과 다의성으로 인한 다양한 해독의 흐름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또는 ‘무엇을 찍은 것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에 대한 응답을 제시해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서술한 의미의 재생산 단계로 이끌어준다.

2) 의미의 전환과 재생산

캡션이 첨가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 이루어진 이전의 해독에서 의미의 전환과 재생산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환과 재생산의 한 유형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프-22에서 캡션을 읽음으로써 사진과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캡션은 사진만 보았을 경우, 해독 불가능한 것들을 명확히 해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진의 내용과 의미를 새롭게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B는 사진-2의 나무상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고, 사진-4에서 캡션으로 인해 보다 명확한 해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B는 사진은 인간 삶의 한 단면인 죽음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다루었으므로, 그들 삶에 대해 경제적으로 접근했다기 보다는 인권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해독했다. 이는 접근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적 차원의 불이익을 다룬 것이며,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캡션의 역할이 서술성의 측면에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C는 사진-4의 안 쪽 조명이 따뜻한 느낌을 통해 축제를 알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장례식이어서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진-4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인 안내판을 다른 느낌으로 이해했다.

E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의미의 재생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 억압된 삶이고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에 대한 해독은 다르게 하고 있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의 입장이나 위치보다는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측면 때문에 사진의 전달 내용을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E는 결국 인간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이 사진을 해독했다.

F 역시 전체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독을 했다. “사진-1은 이 사건이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당한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다. 또 사진-2의 경우는 캡션을 읽으니 그 내용은 불법체류자의 송환인데, 원인이 산업재해가 아니라 교통사고라는 점이 의외였다. 사진-3은 가족들의 확인 장면인데 그 착잡한 심정이 이해된다. 사진-5에서, 결국 어머니의 저 울음으로 다 표현된 것 아니냐?” F 또한 E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과 산업재해를 연관시켜 생각했다. 따라서 교통사고라는 변수는 의외의 해독을 불러일으켰다고 반응했다. 전체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슬픔에 강조점을 두고 해독을 했다는 것이 사진-5의 해독에서 드러난다. 또한 “시신을 가져 갈 수 있었다는 게 그 상황에서 참 다행으로 생각된다. 죽은 사람이지만, 분명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진으로 전달 된 것 같다. 캡션을 읽기 전에는 이 사진들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는데, 캡션을 읽고 나니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다.” F의 캡션을 읽은 후의 전체적인 해독은 위와 같다.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 대해 느껴왔던 차가운 이미지가 사진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이미지로 변화하였음을 지적한다.

D는 캡션을 읽고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D는 법의 테두리에 맞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1과 사진-2의 경우 원칙적인 것과 원칙적이지 않은 것에 비추어 해독한다. 사진-2는 시신을 보내는

행위를 융통성이 있다고 해독했다. 또한 사진-1에서 불법을 임의적으로 합법화시켜 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사진-2의 캡션을 읽고 5장의 사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캡션이 서술성의 기능을 했으며,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캡션을 읽고, 의미의 전환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관점에 따른 의미의 재생산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A과 같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며 이에 동의한다고 해독한 것에 비해 E, F는 교통사고라는 캡션에 비중을 두어 그렇게 송환될 수 있다는 것에 따뜻한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D는 합법과 불법의 테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융통성이 있다는 재생산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사진과 캡션을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결론적인 논의에서 수용자들은 그들의 관점이 사진가의 관점과 다르다할지라도, 사진가의 관점을 공유하였으며, 이것으로 자신이 새롭게 부여한 의미에서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단계를 옮겨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의미의 공유와 증폭을 다루고자 한다.

3) 의미의 공유와 증폭

다섯 장의 사진은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수용자들은 이 다섯 장의 사진을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사진이 주는 환유작용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신의 문화적 배경, 다섯 장의 사진과 캡션이 주는 함축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다. 평면적인 다섯 장의 사진이 현실적 효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캡션은 현실적인 효과를 불러넣는 기능을 한다. 본 장에서는 이를 의미

의 공유와 증폭이라는 틀에서 분석하였다. 수용자들은 사진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와 자신이 생산한 의미의 접합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였고, 이에 현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의미의 증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서 A는 사진-1과 사진-4에서 캡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과잉정보 상태에서 캡션을 통한 선호해독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A는 출국명령과 기간연장의 여권 사진, 어두운 분위기의 시체 운반 장면, 자식의 죽음에 슬퍼하는 가족들과 어머니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사진을 통해 이 사진들이 우리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들 역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해독하였다. 결국 사진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고자 했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D는 “사진-1의 캡션에서 불법과 합법의 조장이라는 글을 읽으니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2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논리에 따라 화장을 하지 않고 시신을 보내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사진-3은 6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말에 삶은 참 고달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진-4은 웬지 안내판이 슬프게 느껴진다. 정말 소 같은 삶을 살았다.” E는 “사진-1에서 출국명령이라는 글이 새로 들어온다. 정부에 이 상황을 인정했다는 것이 보인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지. 사진-2는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읽으니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 사진-3, 사진-4, 사진-5를 보니 죽고 울고 하는 게 참 안 됐다.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 여기서 E는 캡션을 읽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사진-2의 캡션으로 인해 당연하게 생각한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라는 변수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다는 해독을 하였다. 또한 사진-3에서 사진-5의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측면보다는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으로 해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진-2에서 불법체류자들의 국내 생활이 일종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사진들을 봤는데, 그렇게 시신을 자기 나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사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게 했다. 한국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사실은, 이런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한국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죽었다는 것만 해도 가족에게 큰 고통이었을 건데, 게다가 시신을 원하는 가족에게 화장을 해서 보냈다면 가족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이다. 그나마 시신을 보내 준 게 참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보듯이 캡션이 첨가됨으로써, 수용자들은 개인적 차원의 불법성을 사회적인 원인으로 확대시켰고, 사진에 내포된 슬픔의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해독하였다. 여기서 캡션은 서술적 측면에서 작용하였고, 수용자들이 이전에 가진 관점과 교통사고, 캡션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의미의 재생산을 이루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연구자가 형성한 기호작용과 수용자의 기호해독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수용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서술한 캡션을 읽고, 사진가의 관점에 공유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캡션이 부여한 서술로 인해 사진의 현실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사진의 의미가 사회적인 차원으로 한층 증폭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6. 결론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매체가 발달됨에 따라 간접적인 보도가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바로 실시간에 볼 수 있고, 그 매체도

다양하다. 정보 전달의 신속성에 대한 관심의 대두에서, 현재는 범람하는 정보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포토저널리즘에 대한 원론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포토저널리즘의 목적은 사진과 캡션을 통해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재현을 위해서, 사진가는 사진의 의미작용과, 사진과 캡션의 의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포토저널리즘은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의미작용과 의미해독의 내용이 일치할 때 일어난다. 포토저널리스트는 수용자의 해독을 염두 해 두고 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 수용자는 사진의 도상기호, 캡션,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해독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포토저널리스트는 기호작용에 있어 수용자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전달이라는 차원의 문제는 문화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데올로기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포토저널리스트가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자체는 문화내의 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진행되면서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포토저널리스트는 이데올로기를 가장 잘 활용하고 또 자기의 관점으로 가장 잘 풀어낼 필요가 있다.

모든 사건과 그것을 재현하는 사진과 글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전후 사정이 없는 우발적이 상황이라기보다는, 사건들의 역사적인 과정 즉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다. 그렇지만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기는 순간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의 이해를 위해서는 글, 즉 텍스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포토저널리스트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내고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수용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한편 수용자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것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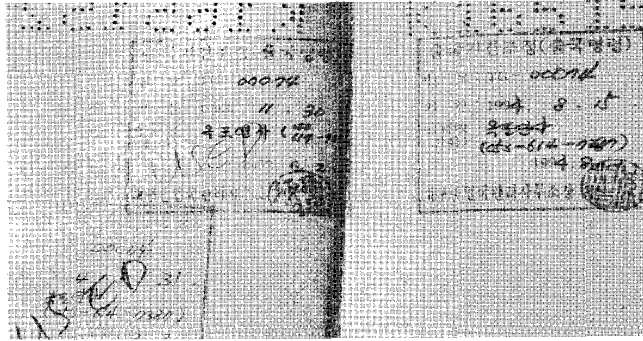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포토저널리스트가 재현한 현실과 그것을 해독하는 수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고, 이것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 전제에 대한 고찰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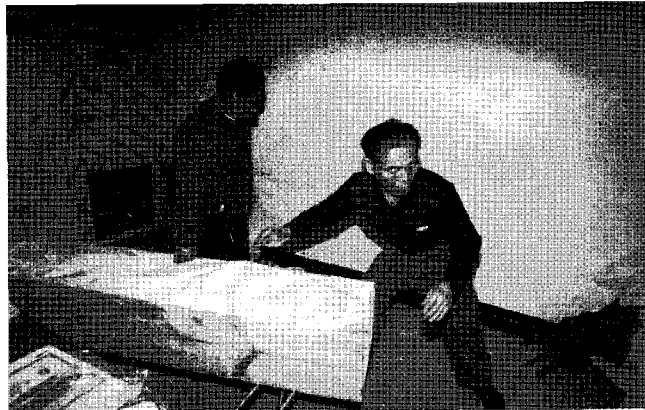
- 강만석 (1994). 《의미-재미-권력의 문제를 통해 본 신수용자론 연구: 존 피스크의 능동적 TV 수용자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강수돌 (1997). 《경영과 노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 구자호 (1995). 《신문사진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경용 (1998).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창남 (1994).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관한 일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남성일 외 (1996).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 박강우 (1994). 《수용자의 '저항적 해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박경모 (1994). 《신문사진의 현실재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박명진 편. (1994). 《비판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 서울: 나남출판.
- 박재건 외 (1995). 《사진용어사전》. 서울: 미진사.
- 박충환 (1994).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문화접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百瀬宏·小倉充夫 編 (1992). 《現代國家と移民労働者》. 東京: 有信堂.
- 송병준 외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송효섭 (1997). 《문화기호학》. 서울: 민음사.
- 양중훈 (1994). 신문사진 연구. 《사진기자》, 80.
- 이기문 감수 (1994).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이은진 (1991). 《드라마를 통한 의미생산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경갑 (1998).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서울: 한길사.
- 전경수 (1996).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 정재철 (편). (1998). 《문화연구이론》. 서울: 한나래.
- 한국기호학회 (편). (1995). 《문화와 기호》. 서울: 문학과지성사.
- Barthes, R. (1997). 《이미지와 글쓰기》. (김인식 편역) 서울: 도서출판 세계사. (원저 출판연도 1981).
- Berger, J., & Mohr, J. (1995). 《말하기의 다른 방법》. (이희재 편역). 서울: 눈빛. (원저 출판연도 1982).
- Berger, J., & Mohr, J. (1996). 《제 7의 인간》. (차미례 편역) 서울: 눈빛. (원저 출판연도 1974).
- Fiske, J. (1997). 《문화커뮤니케이션론》. (강태완·김선남 편역). 서울: 한 뜻. (원저 출판연도 1990).
- Hammersley, M. (1996). 《현대사회와 기호학》. (백선기 편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McQuail, D. (1999). 《수용자 분석》. (박창희 편역).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원저 출판연도 1997).
- Lester, P. (1991). *Photojournalism: an ethical approach*. New Jersey: Arno Press.
- Hicks, W. (1952). *Words and pictures*. New York: Arno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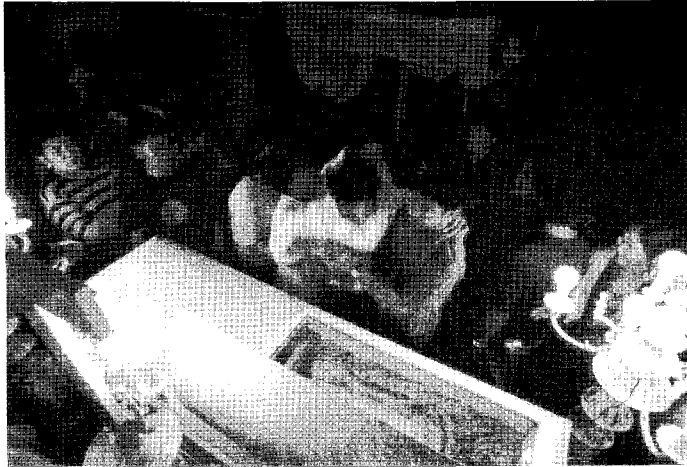
<부록> 분석에 사용된 사진과 캡션



<사진-1> 출국기간 조정은,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동안의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면죄부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을 규정하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은, 그들의 범죄성이나 반사회성과는 관계없다.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출국기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해주고, 그 노동력이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가처분성은 결국 불법체류 노동자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불법인 것이다.



<사진-2> 레니 로꼬스는 필리핀에서 온 불법체류 노동자였다. 그가 교통사고로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의 시신을 입관할 수 있었다. 불법체류를 하다 죽으면 화장을 해서 본국으로 송환된다. 필리핀은 카톨릭을 국교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보상금보다 그의 시신을 원했다. 죽음을 대하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다.



<사진-3> 1991년 12월 6일 레니 로꼬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건강한 필리핀의 한 노동자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향을 뒤로 한 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1997년 12월 25일, 그가 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진-4> 5일간 여러 친지들의 문상을 받고서 12월 30일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지난 6년간 물위에 뜬 기름처럼 우리 사회로부터 유리된 존재였던 그가, 죽은 지 40일이 지나서야 더 이상 노동이 필요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된 것이다. 단지 노동력으로만 존재했을 뿐, 정서적·제도적 교감의 대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거부되었던, 그의 삶에 대한 장례식이다.



<사진-5> 필리핀은 모계 사회이다.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상주가 된다. 그녀는 지난 5일간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에 젖어있었다. 어쩌면 그 슬픔은 장시간의 노동이나 낮은 임금 못 사는 나라에 대한 경멸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온 자식을 위해 지난 6년간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었던 슬픔이었는지도 모른다.

(최초 투고 2002. 3. 20, 최종원고 제출 2002. 4. 23)